



“열심히 뛰어달라” 파란색 운동화 전달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22일 국회에서 시·도지사 당선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과 안전, 균형발전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정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시·도지사 당선자에게 더 열심히 뛰어달라 의미로 파란색 운동화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자,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자,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 박원순 서울시장,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박영선 원내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당선자,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자, 이재명 성남시장. /연합뉴스

“지방자치는 2할 자치... 지방분권 강화해야”

새정치, ‘지방정부 예산정책협의회’서 주장
“재정 문제 해결, 헌법 개정 논의 착수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의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은 22일 당 지도부와 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지방정부 재정악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방분권의 강화’를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민생과 안전, 균형발전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정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장을 맡아보니 지방자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조직권이나 재정권이 있어 ‘중앙정부의 출장소다’, ‘2할 자치다’ 이런 말 있는데 그것이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이런 지방자치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제대로 만

들어 내기도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지방행정의 혁신과 지방분권의 가속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당에서 적극 협력해 법령을 개정하고 중앙정부를 견제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자는 “박근혜정부가 지방균형 정책에 전혀 의식이 없어 매우 실망스럽다”며 “아마도 박 대통령의 의식 밑에는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각이 1초도 떠나지 않을 텐데 아버지의 정책마저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당선자는 “작가 이호철 씨가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소설을 쓴 것,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실시한 것은 박정희정부 때

다”라며 “따님(대통령)은 왜 (이러한 사실을) 잊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또 계층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새정치연합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봉을 비교하면 10대 5다. 우리 사회 ‘반토막 인생’들이 60~70%를 넘어가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격차 완화를 위해 새정치연합이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하면 총선·대선에 이긴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대한민국은 중앙집중화에서 자치분권의 시대로 가야한다. 모두가 자치분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준비를 안하고 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해 자치분권으로 가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개정 논의부터 지방정부 구성안까지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실천

해달라”며 “지방정부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문제, 600년 된 국가 공무원 제도의 개혁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자기책임성 조정문제 등 헌법과 법률의 엄청난 변화를 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전북지사 당선자는 “재정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치적 분권만 이뤄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합된 재정적 구조가 쉽게 해결되도록 장치를 만들지 않는다면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외쳐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 발생한 동부전선 총기난사 사고 수습을 위해 불참한 최문순 강원지사를 제외하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윤장현 광주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등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들이 출석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쌀 관세화 정부·농민단체·전문가 입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1. 관세화 유예 재연장 가능성 및 입장	새연장하려면 밀리핀처럼 의무연장(하이바) 신청해야 할 아건은 매우 부담 클 것	의무수입물량 (7천t)을 추가로 늘리는 것만 부담. 장사미리도 돼야며 중순시, 평균 관세화 30%만	관세화 유예를 통한 수입증가는 쌀 농민에 매우 부정적	쌀 시장 개방 여부는 결정에 달려있음
2. 관세화할 경우 관세율 및 추가 수입물량	일본·대만은 추가 수입량이 미미함 관세화가 하이바보다 수입물량 적을 것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쌀 산업에 최선의 선택을 하고 후속조치할 것	관세율은 300~500% (추정치) 최대 고율관세를 적용해야함	고율의 관세를 설정해도 추후 변화가 가능함 쌀 대책이 불만해 추가수입 여지있음
3. FTA-TPP-DDA 협상에 따른 영향	WTO 협상의 쌀 관세화와 FTA-TPP 협상은 별개임 DDA와 쌀 관세화는 직접 관련 없음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 제외돼 지속적으로 보호할 것. DDA 협상 타결시 쌀에 대해서는 관세가 낮아지지 않게 최선다할 것	FTA-TPP협상에서 쌀이 협상의제가 되면 관세가 낮아질 가능성 높음. 정부가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대국민 약속해야함	당장 FTA-TPP의 임력이시작되고 있음, DDA협상의 합의내용에 따라 개방방향이 결정됨

/*연합뉴스

‘지명철회’ 않고 ‘자진사퇴’ 무게

박대통령 ‘문창극카드’ 선택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처리 문제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순방 도중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친일사관 논란으로 자진사퇴 압박을 받는 문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에 대해 “귀국해서 재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휴일인 22일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참모들로부터 문 후보자 사태에 대한 여론 동향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문 후보자 거취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제는 박 대통령의 지명철회냐,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냐 이도 저도 아니면 제3의 ‘절충안’이 나오느냐가 관심사다. 일단 청와대와 여론에서는 지명철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인사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내심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권 주요 인사들도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해 왔다. 자신의 문제로 박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긍정적 평가를 웃도는 결과가 나온 것도 문 후보자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문 후보자가 21일과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 마련된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문 것도 거취 결정에 관한 속고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온다.

다만, 문 후보자가 여론의 자진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거부’한 점을 볼 때 지난 2006년 전효숙 당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처럼 문 후보자가 박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박 대통령이 수용하는 ‘중재안’이 선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전효숙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지만 4차례 본회의 상정 무산이라는 극심한 진통을 겪자, 전 후보자가 지명철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매듭지은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ipark@

日 ‘고노담화’ 흔들기 정부, 대일 압박 강화

정부가 일본의 고노(河野)담화 흔들기에 맞서 다각적인 방향에서 대일 압박을 본격화한다.

외교부는 박근혜 대통령 순방을 수행하고 귀국한 윤영재 외교부 장관 주재로 22일 회의를 갖고 추가 조치 방안을 금명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추가 조치로는 일단 일본군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제시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 15일 일본이 고노담화를 훼손할 경우 국내외의 권위있는 입장·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차원에서 2012년과 2013년 4만5000여건의 국내의 사료를 조사한 바 있다.

/*연합뉴스

관세화 유예종료 6월 결정... 9월 양허표 WTO 통보

쌀개방 향후 일정 어떻게 말까지 확정해 통보해야 한다”면서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해 6월중 정부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수입 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을 정리한 수정 양허표를 WTO에 통보할 방침이다. 정부가 양허표를 제출하면 WTO 사무국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동의 절차를 거쳐 사무총장 명의의 인준 서류를 한국 정부로 보내는 절차를 밟게 된다.

WTO에 수정 양허표를 제출한 상태에서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제4차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서 “WTO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9월

정부가 지난 20일 쌀 관세화를 통한 시장 개방을 사실상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추진 일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개최한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다음주 중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쌀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제4차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서 “WTO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9월

/*연합뉴스

www.muancleanvalley.com

청정 환경으로 더욱수룩 더 시원한 라운딩!
무안클린밸리

무안이 아껴둔 청정계곡에 위치한 친환경 골프장 무안클린밸리에서 시원한 바람과 끝없이 펼쳐지는 무안 앞바다를 바라보며 시원한 라운딩을 즐기십시오!

그랜드 오픈기념
그린피 할인행사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골프코스 소개
• 풀린코스 : 1 ~ 9
• 밸리코스 : 10 ~ 18

찾아 오시는 길

무안클린밸리 MUANCLEANVALLEY
전남 무안군 청계면 남덕리 신77번지 클린밸리

문의 061) **452-3100**

• 시행사: (주)영산 • 시공사: 기안토건(주)